

#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정 진 원\*

본 연구는 음악영재성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 제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모형 상정에 앞서 이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는데 있다. 음악영재성은 일반영재성의 이해에서 시사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면적 구성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발현과정에는 적성, 경험,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음악영재성은 단계적 발전을 거쳐 예술적 수준의 음악적 탁월성으로 완성되며 단계적 발전 과정에 따른 적절한 경험과 학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은 잠재적 음악영재 발굴을 위한 대상의 확대와 경험의 다양화, 음악적 탁월성 완성을 위하여 교육내용, 교수방법 그리고 창의성 차원의 체계적인 차별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제어 : 음악영재성, 음악재능, 음악영재교육과정, 음악능력요소

## 차 례

- I. 서 론
- II. 영재성 개념의 변화
  1. 영재성 영역의 확장
  2. 영재성의 구성요소
  3. 영재성과 재능
- III. 음악영재성과 음악재능의 발현
  1. 음악재능 결정요인
  2. 음악영재성 발현에 대한 이해
- IV.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방향의 설정
  1. 영재교육과정 구성의 쟁점
  2.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접근
- V. 결 론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전임강사

## I. 서론

‘영재’란 선천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영재와 영재성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들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개체 자체에 대한 추적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심리학적 호기심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내며 영재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다양화 되면서 영재와 영재성의 문제들은 교육영역에서도 점차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이후 증가되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차 예술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 예술 중·고등학교제도 외에 영재원, 영재학급 등의 유형이 더해졌고 2011학년도부터는 예술중점 중·고등학교의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10, 5/20 보도자료)까지 도입되면서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의 범위와 방법의 확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되고 있다. 예술영재교육의 제도적 확장은 일차적으로는 대상과 기회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시도가 영재와 영재성 이해에 바탕을 둔 교육적 목적 수립과 해당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반을 전제로 한 체계성에 근거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적 노력은 근시안적이며 전시적인 효과에 머무르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예술영역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음악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적 연구들(김춘미 외, 2006; 한수연 외, 2006; 이미경, 2010)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 체계성의 부재이다. 영재교육법 시행이후 기존의 예술 중·고등학교 외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재학급과 영재원이 개설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어 음악적성 및 영재성 발현에 중요한 유·초등 시기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교육적 배

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영재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영재성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체계성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시행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수연 외, 2006). 또한 이러한 제도적 체계성의 부재는 영재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부재와 일반교육-영재교육-전문교육의 단절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김춘미, 2006).

둘째로는 전문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한수연, 2006; 이미경, 2010). 영재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은 음악영재의 잠재적 가능성을 예술적 수준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음악영재교육제도는 실기능력 중심의 훈련적 방법을 주로 하여 구성되고 있어 미래의 예술계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예술인재의 양성을 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한수연, 2006).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단위 교육과정들이 의미 있는 음악영재교육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들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 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다. 교육적 당위성과 영역내적 체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모형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단위교육과정들과 프로그램들의 타당성과 연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제안에 앞서 그 기저가 되어야 할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0세기 이후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영재성의 의미와 그에 따른 영재교육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반영 될 수 있을 지를 음악재능의 속성 및 발현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한다.

## II. 영재성 개념의 변화

영재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고전적 인식이 아직도 전제되어 있지만 20세기 동안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영재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고 동시에 그에 따른 영재성 판별과 제도

적 개발 등 다양한 교육적 과제를 안겨 주었다.

## 1. 영재성 영역의 확장

1950년대까지에 해당되는 초창기 영재성 이해는 지능(IQ)으로 알려져 있는 뛰어난 지적능력을 재능의 근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심리학에서의 IQ 테스트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 능력에 근거한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빠른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속진의 형태로 이루어져 정규교육과정을 1~2년 씩 단축하는 형태로 구성 되었다(Passow, 1981).

영재성 이해에 있어 학업 이외의 영역에서의 탁월성이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영재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취 능력'으로 확대되었고 영재성의 영역 또한 '언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등의 학문 분야; 음악, 회화나 조형 예술, 행위 예술 및 인공적 예술 등의 예술 분야; 그리고 인간관계분야'로 늘어나게 되었다(Passow, Goldberg, Tannenbaum, & French, 1955).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재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영재성의 영역 분류는 1972년 최초로 제안되어 1988년 최종 수정된 미국 연방 교육부의 분류방식이다(표 1).

<표 1> 미국 교육부 영재성 영역 분류 변화표(Maryland State Dept. of Educatio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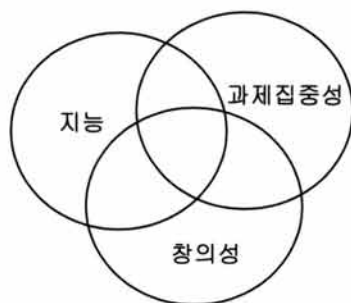
| 1972     | 1978                  | 1988       |
|----------|-----------------------|------------|
| 일반적 지적능력 | 일반적 지적능력              | 인지능력(명칭전환) |
| 특정학업능력   | 특정학업능력                | 특정학업능력     |
| 창의력      | 창의력                   | 창의력        |
| 시각예술능력   | 시각예술능력<br>(신체운동능력 포함) | 예술성        |
| 리더십      | 리더십                   | 리더십        |
| 신체운동능력   |                       |            |

미국 교육부가 제시한 영재성의 영역은 영재성이 단지 지적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 및 신체운동, 그리고 리더십 등 비지적(悲智的)이며 복합적인 요인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취측면 뿐 아니라 표준화검사, 관찰, 전문가의 판단 등을 통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잠재적 능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발굴 대상이 아동을 포함한 미성취 영재까지 확대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영재성의 구성요소

영재성의 영역과 대상이 확장 되면서 영재성의 정의에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지속적으로 뛰어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등의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등장 하게 되었고 이는 영재성의 구체성과 의미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학자들은 영재성이 다양한 재능의 양태를 띠고 발현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능력의 다양성을 더욱 뛰어나고 특별하게 만드는 '영재성'에 대한 본질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속성에 대한 정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뛰어난 지능 외에 영재성의 필수 속성으로 포함된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토렌스(E. P. Torrance), 타일러(C. W. Tylor) 그리고 렌줄리(J. S. Renzulli) 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영재성과 재능의 한 요소 또는 한 종류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보편적 지능 또는 영역내적 능력의 우월함을 넘어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결과와 산출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영재성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기 되면서 영재성과 창의성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렌줄리는 영재성의 보다 근본적인 규명과 그 신축성 있는 적용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면서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창의성, 그리고 높은 과제집착력으로 설명되는 성향적 요인의 세 가지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합임을 강조하였다(Renzulli, 1978).



[그림 1] Renzulli의 영재성 삼환구조 모델

렌줄리의 모델에서 탁월한 지능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 지능 외에도 특정 분야나 학과의 특수지능도 포함한다. 또한 렌줄리는 IQ 115이상의 일반지능을 가진 아동이면 영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많은 업적을 이룬 세계적 인물들 중 지능지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음을 볼 때 영재성을 성취하기위한 최소기준이 평균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면 충분하다는 가설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재는 이러한 통합적 특성을 갖추고 인간 성취의 가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아동이다. 렌줄리는 이 세 가지 특성 간의 상호 작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통상적으로 제공 되지 않는 다양한 범위의 교육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Renzulli, 1978, p.261).

### 3. 영재성과 재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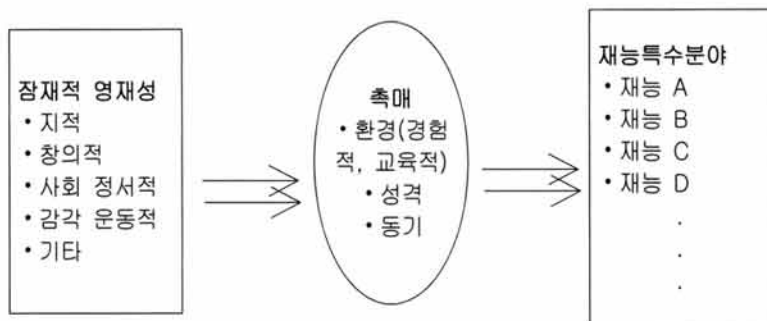
영재성과 재능을 차별하려는 시도 중에서 가장 혼한 구분은 영재성이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반면 재능은 다른 기능이나 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영재성은 두 가지 형태, IQ 점수로 증명하는 일반 지능과 타당한 검사 도구로 측정된 특수 적성 또는 재능으로 구분 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지적 능력과 재능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

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서는 영재성과 재능의 개념을 법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Zettel, 1979).

‘영재아’는 선천적으로 높은 지적 능력을 타고난 아동으로 높은 지적 성취와 학업적 성취를 이룰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재능아’는 뛰어난 지도력, 계속적인 뛰어난 수행, 조작 기능, 표현예술, 음악, 미술 등 인간의 가치 있는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과 적성, 능력을 보여 주는 아동이다 (p. 63).

위의 정의에서 보자면 지적 능력을 뛰어난 성취를 위한 잠재성으로 보는 반면 재능은 이러한 잠재적 능력이 특정 분야 내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취된 능력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재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적 정의는 지적 능력과 다른 능력 사이의 대조를 넘어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능력, 능력 대 수행의 구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영재성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제안 한다.

가네(Gagne, 2003)도 영재성과 재능의 구분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적 가능성과 발현된 능력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론의 근거는 지적능력이란 영재아가 타고 나는 일반적 능력 요소이지만 개인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네가 지적하는 잠재된 지적능력의 다양성은 가드너의 다중 지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지능 이론(Gardner, 1983)은 지능 자체를 다양한 종류의 세부지능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에 일반지능과 특수지능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잠재력으로서의 지능의 다양성이 어떻게 특수 분야에서 가시적 재능으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네는 영재성의 영역을 크게 지적, 창의적, 사회 정서적, 감각 운동적 영역 및 기타 영역으로 나누고 영재성은 하나 이상의 능력 영역에서 나타나는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잠재적 영재성이 성장과 경험의 과정에서 다양한 촉매(Catalysts)의 영향을 받아 특수 분야의 구체적 재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네의 모델에서 촉매는 가족, 학교 및 기타 경험을 제공하는 외적 환경 요인과 성격과 동기를 포함하는 내적 요인을 포함한다(그림 2).



[그림 2] 가네의 이론이 제시하는 영재성과 재능의 관계

가네는 그의 이론에서 '영재'를 타고난, 그러나 성취 시켜야 할 잠재적 능력을 가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재아는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또래 집단 보다 뛰어난 적성을 보이며 이러한 적성의 근원은 유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전적 잠재성은 영재아를 둘러싼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축매의 자극을 받으며 특수 분야의 재능으로 발현된다. 축매적 요인이나 기회(Chances)의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 가능성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들 잠재적 가능성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발달 할 수 있을 지, 혹은 재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네의 모형은 후천적 조건들, 환경, 경험, 교육을 영재성 발현의 결정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영재성 이해의 변화는 영역적 다양성, 구성요인의 다면성, 그리고 발현을 위한 과정의 중요성의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 될 수 있다(표 2).

&lt;표 2&gt; 영재성 이해의 쟁점

|                |                                                                                                                                                                                                                                  |
|----------------|----------------------------------------------------------------------------------------------------------------------------------------------------------------------------------------------------------------------------------|
| 영역적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성은 단순히 높은 지적 능력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li> <li>- 영재성은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다양한 재능영역에서의 관찰을 통해 설명 되어야 한다.</li> <li>- 인간 능력의 주요 영역으로 지적, 창의적, 사회 정서적, 감각 운동적 영역이 제시되었듯이 재능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li> </ul> |
| 다면적 구성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성은 영재성 결정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li> <li>- 창의성은 독립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재능의 탁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i> <li>- 영재성은 지능, 창의성뿐만 아니라 동기, 성향과 같은 비인지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li> </ul>                             |
| 발현을 위한 과정의 중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성은 선천적 잠재력이 적절한 발현과정을 거침으로써 발현 된다.</li> <li>- 경험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은 영재의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li> </ul>                                                                     |

### Ⅲ. 음악영재성과 음악재능의 발현

영재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해당 영역에서의 영재성을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 하여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음악영재교육의 방향 설정에 앞서 음악영역에서의 영재성의 의미와 발현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음악재능 결정요인

음악 영재성은 음악적 재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한다’라는 표현에는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음악영재란 이러한 재능이 뛰어난 경우를 의미한다(정진원, 2008). 탁월한 수준의 음악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1) 청각적 변별력

‘소리’는 음악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통로이다. 따라서 소리의 특성을 잘 구별하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소리의 물리적인 성질은 일반적으로 음고, 길이, 음량, 그리고 음색 등 소리의 본유적인 특징으로 설명되어진다. 따라서 소리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크고 작음의 차이나 소리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음악적 능력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음악활동을 위한 청각적 기능은 단지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의 특징을 구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리를 기억하고 연상 할 수 있어 연속되는 소리에서 발견되는 동질성과 이질성 그리고 소리 간의 관계성을 파악 할 수 있을 때 소리가 음악으로 구성되는 논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Hallam, 2006; Lehman, et. al., 2007).

음악적 활동에 필요한 기능 요인 중 청각적 변별력은 모든 음악활동에서 필수적인 능력 요소로서 음악적성과 동일선 상에서 이해된다. 예민한 청각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지만 음악활동에 요구되는 청각적 변별력은 단순히 감각적 차원의 소리 구별과는 다르다(표 3). 재능 요소로서 음에 대한 청각적 변별력은 음악영재성 발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음악적 청각 변별력

- 
- 박, 박자, 리듬에 대한 정확한 감지 및 변별 능력
  - 음고(pitch)와 음조(intonation)의 정확 감지 및 변별 능력
  - 음의 크기와 음색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
  - 한 번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재현 할 수 있는 능력
  -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inner hearing, audiation)
-

## 2) 음악지능

음악지능은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음악적 사고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고나는 능력으로서의 음악적성과 구별된다. 씨쇼어(C. Seashore)는 지능(Intelligence)이 그 배경에 음악적 지식, 음악적 흥미, 음악적 과제, 음악적 경험과 반응의 열기로 채워져 있을 때 음악적이 된다고 설명한다(Seashore, 1937). 특히 음악지능의 개념은 가드너의 MI 이론(Gardner, 1983)을 통해서 독립된 지적능력으로 제시되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적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리를 통한 지적사고라는 점에서 음악지능의 감각적 기저는 음악적성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감각적 변별력 보다는 다양한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지각/인지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밤버거(J. Bamberger)는 음악지능은 음악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감각/지각/인지 사이에서 탄력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면서, 음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해결해야 할 음악적 과제에 따라서 감각적, 지각적, 인지적유형의 사고를 적절하게 변형하며 적용하는 것이 관찰된다고 보고한다(Bamberger, 1995).

음악지능을 감각된 소리를 지각-인지로 확장 시키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음악지능은 음악적성을 넘어서 개발되어야 하는 한 차원 위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음악지능은 음악적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청각적 변별력을 근거로 음들 사이의 연계성 이해와 비교, 나아가 구조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다양한 음악적 표현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영재아들은 음의 관계와 구성의 특성들을 더욱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능력은 여러 가지의 음악적 활동에서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음악지능은 이해, 표현, 창작을 포함하는 모든 음악활동에서 소리의 조직과 구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 도구적 방법은 없다. 할람(Hallam, 2006)은 음악적 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악이해 능력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4).

<표 4> 음악적 지능과 관련된 음악이해능력

---

- 독보력
  - 음계, 화성 등의 음 관계의 이해와 전조 능력
  - 음악적 개념 및 음악 형식의 이해
  - 암보능력
  - 작곡, 즉흥연주를 통한 음악 구성 능력
  - 음악에 대한 시-청각적 분석 능력
- 

### 3) 연주능력

음악재능이 뛰어난 음악 연주능력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음악가들이나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보편적인 견해이다. 연주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음악재능은 타고나는 소리에 대한 감각능력과 개인의 음악적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혼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상 전문 음악교육기관이나 음악영재 프로그램을 위한 변별과정에서도 연주능력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연주영역의 영재들은 보통 그들의 또래 수준을 뛰어 넘는 큰 감각적 차원의 기능적 정교함을 나타내며 빠른 발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뛰어난 연주 능력은 외향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음악영재의 가장 분명한 능력 지표이다. 그러나 뛰어난 연주가로서의 음악재능을 타고난 경우라고 해도 연주능력은 갖기 위해서는 학습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음악영재가 악기를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의 잠재적 영재성은 결코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 영재성을 발굴하고 판별하는 데 있어 연주능력에 어떤 비중을 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판별해야하는지는 근간 음악영재교육에 있어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이다(한수연외, 2006). 음악적성과 음악지능이 주로 정신적인 능력인데 비하여 연주능력은 실제 음악에서 요구하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래(표 5)와 같은 기능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큰 감각적 운동 기능이 작용한다(Hallam, 2006).

**<표 5> 연주능력의 기능적 측면**

- 
-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
  - 정확하고 민첩한 연주 기능
  - 아티큘레이션
  - 음색 조절능력
- 

뛰어난 수준의 연주능력을 고려함에 있어 기능적인 능력이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성숙한 음악적 이해를 동반하지 못한 기능은 예술적 탁월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재능으로서의 연주능력은 뛰어난 기능적 정교성이 음악적 이해와 연계될 때 음악적 탁월성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음악적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통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결과 또는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적으로 가치 있고 유용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적 창의성은 작곡과 즉흥연주와 같이 새로운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예술적 차원의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생산해 내는 모든 유형의 음악활동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정진원, 2010).

연주자는 표현의 방법을 결정하는 내내 어떻게 자신의 감성을 소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 과정에서 연주자는 음악을 새롭게 조직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색, 강약, 프레이징, 뉴앙스와 같은 음악적 요소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선택하고 조절해야 한다. 이런 표현결정과정을 거쳐야만 연주는 소리를 통해서 연주자의 감성적인 의도를 전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연주가는 창의적인 음악 해석능력이 필요하다(Haroutouniann, 2002).

음악적 창의성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확대 시키면 음악을 들어 이해하고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언어로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음악적 창의성을 찾을 수 있다. 비판적 청자는 소리를 내면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다듬어진 단어들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의 유형은 음악적 영역에서 언어적 영역으로 변환하게 된다. 해설, 비평은 언어적 측면이 드러나는 활동이지만 해설과 비평의 재료가 소리 즉 음악이라고 볼 때,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이나 연주를 위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처럼 창의적인 음악 사고능력을 공유하고 있다. 음악 비평가 역시 음악의 창의적 해석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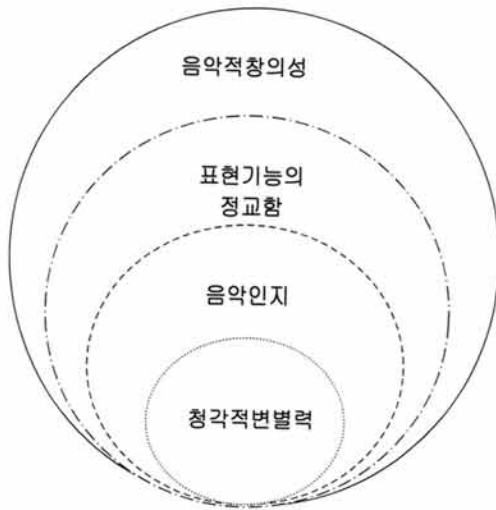
할람(Hallam, 2006)은 광의의 음악적 창의성은 작곡이나 즉흥연주와 같은 적극적인 창작능력 외에 모든 음악적 활동에서의 다음과 같은 표현성(expressive quality)을 결정한다고 보았다(표 6).

#### <표 6> 창의적 표현성

- 표현 의도에 따라 소리를 조절, 구성 할 수 있는 능력
-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음악적 표현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 긴장-이완을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는 연주 능력
- 자신의 생각, 감정,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하거나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 음악의 논리적 범위 안에서 자신의 표현을 독창적으로 구성 할 수 있는 능력

재능적 차원의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며 기능적 음악 능력을 예술적 표현력으로 차별화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음악적 창의성은 뛰어난 음악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음악 영재를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 해 내는 천재적 예술가로 성장 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Gardner, 1993). 음악영재가 가지고 있는 청각 변별력, 음악지능, 연주능력이 음악적 창의성으로 완결 될 때 음악영재가 예술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 따라서 음악적 창의성의 발견과 개발의 문제는 향후 음악영재교육의 차별화 차원에서 가장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음악 영재성의 발견으로부터 음악적 탁월성으로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능력 요인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음악영재성의 요인들은 모든 음악활동에 관여하지만 단계적 양상을 띠며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완성 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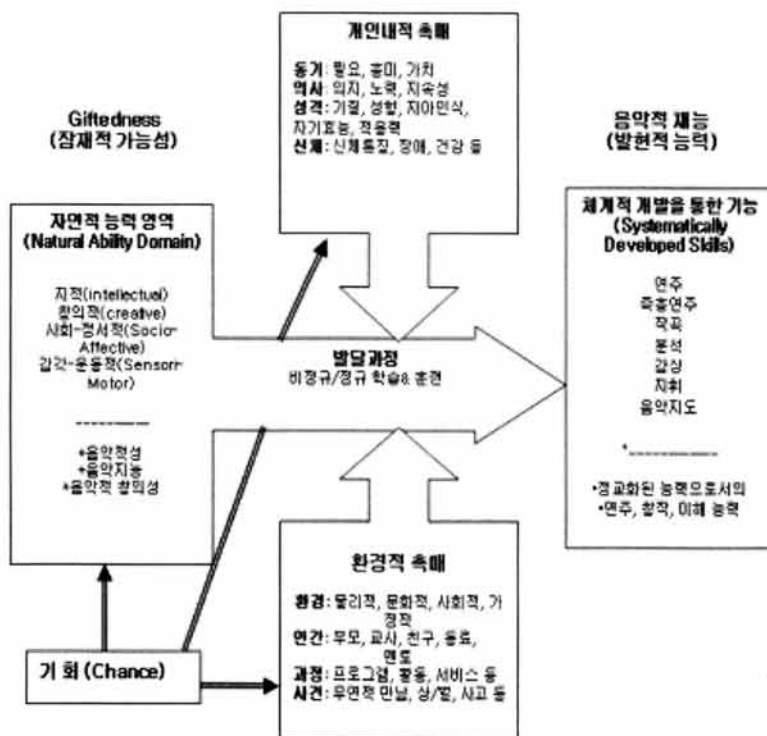
[그림 3] 음악재능 결정요소

## 2. 음악영재성 발현에 대한 이해

### 1) 영재성 발현의 과정

가네(Gagne, 1985)는 ‘영재’를 성취 시켜야 할 잠재적 능력을 가진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영재성의 본질 뿐 아니라 발현 과정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네가 제시하는 영재성 발현과정에서의 다중관계성 모델은 음악영재교육에서 고려해야할 다면적 요인들을 안내 해 줄 수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영재성은 어느 정도의 영역 친화적 성향을 띠다고 하더라도 발현되기 전까지는 모호한 형태의 지적능력, 창의성, 사회 정서적, 감각 운동적 잠재 능력으로 존재하다가 발달(development)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재능으로 나타난다. 음악영역에 적용하여 보자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음악적성과 기타 지능 및 성향적 기질, 그리고 근 감각적 민첩성이 음악적 경험, 음악 학습과 훈련 등의 교육적 과정을 거치면서 연주, 즉흥연주, 작곡, 지휘 등등의 특수하며 구체적인 음악적 재능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4] 가네의 모델에 적용한 음악영재성의 발현 과정

가네의 모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잠재성으로서의 영재성이 바람직한 경험과 학습 훈련 등의 ‘발달 과정’을 거쳐야 재능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재교육에 있어서 영재성의 판별 보다는 양성과 교육을 통한 발달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때 다양하게 작용하는 ‘촉매’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촉매’는 영재아의 기질적-정서적 성향과 관련되는 내적 촉매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외적 촉매로 나누어진다. 개인 내적 ‘촉매’에는 지능 요소 외에 동기, 참을성, 자기조절 능력, 성격 및 건강 상태 등 개인의 기질, 신체 특성과 같이 성향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높다. 외부적 촉매에는 환경 외에 부모, 교사, 그 밖에 사회적 환경 등이 속한다. 조기 발견과 오랜 기간에 걸친 뒷바라지가 필요한 음악영재성의 발현 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외적 촉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음악적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지 못한 경우 아동의 음악적 영재성은 더욱 그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관심과 능력에 의하여 결정 될 소지가 크다. 음악영재성은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적 촉매요인은 영재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초년기에 겪게 되는 음악과 관련된 강한 인상들은 결정화 경험(crystallizing experience)이 되어 음악적 목적 설정과 학습적 몰입 등, 태도 및 가치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ai & Schader, 2002).

음악영재성의 발현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음악적 성향과 음악적성은 영재성의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발견하여 잠재력으로서의 영재성이 가치 있는 재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환경과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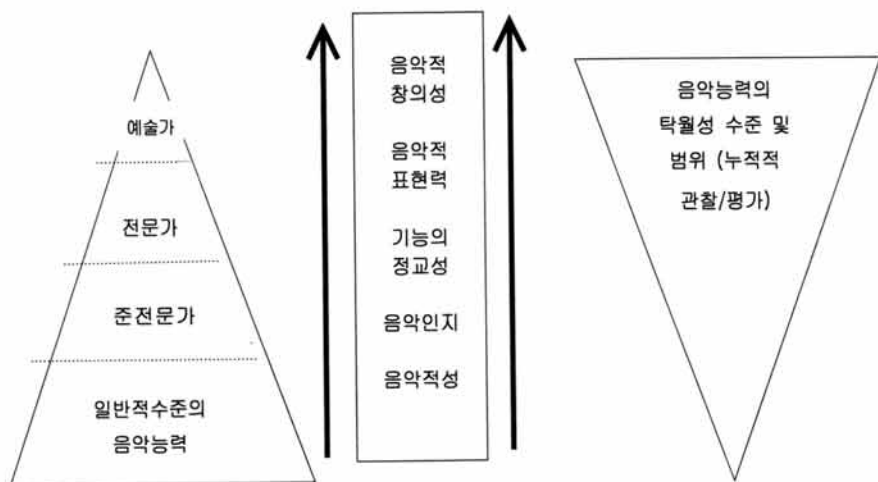
## 2) 음악재능의 단계적 심화

음악영재교육에 있어 음악적 능력의 발현 양태는 영재성 판별 및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지표이며 전문적인 수준의 음악적 능력(musical expertise)은 영재성 개발의 중요한 목적이기도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음

악적 잠재력은 음악적성, 음악인지, 표현기교의 정교함 그리고 음악적 창의성 등의 능력요소들이 연계되어 음악적 재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잠재적 능력의 발현과정에서의 내적, 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음악영재성 역시 일반 영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있거나 없거나의 이원론적인 판별의 문제가 아니다. 음악영재성은 보편적 음악능력의 연장선상에서 찾아내고 길러 주어야 하는 배양과 양성의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음악적 능력의 완성도는 단계적 발전을 거치며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이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적 혹은 비교육적 경험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수준의 음악능력만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수준의, 소수는 전문가의 수준까지, 그리고 극히 일부는 음악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의 장을 여는 창의적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다. 레만(Lehman, Sloboda, & Woody, 2007)은 음악적 전문성의 수준을 네 단계로 제시하면서 상위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요인으로 음악적 잠재성 외에 학습과 훈련 그리고 집중적 연습 등의 후천적 변인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상위 단계로 올라 갈수록 해당 수준의 음악적 능력에 도달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지만 감당 할 수 있는 음악적 능력의 범위와 심화 수준 및 완성도는 확장되어야 한다(그림 5).

음악능력의 탁월성의 맥락에서 유전적인 소인으로서의 음악영재성과 후천적 경험 또는 훈련의 상호작용을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음악영재성은 음악적 능력의 발전 선상에서 이해되고 발견되어야 한다. 헤로우토니안(Haroutounian, 2002)은 음악영재성의 판별은 음악능력의 적극적인 계발을 통해 얻게 되는 누적적 관찰과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음악영재성의 각각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음악적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음악영재성의 발현 단계와 음악적 탁월성의 확장

#### IV.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방향의 설정

영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 영재성 또한 독립된 개별능력으로 보기 어렵다. 음악 영재성은 음악적 활동과 그 결과를 정교하고 독창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넓고 유연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정규적/비정규적 학습과 훈련은 음악적 잠재력이 음악적 재능으로 발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이다. 따라서 음악영재교육과정은 모든 수준의 음악교육에서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포용적이며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1. 영재교육과정 구성의 쟁점

영재성이 지능과 같은 단일속성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성을 띠고 있으며 더하여 계발과 교육을 통해 재능으로 발현되는 생성적 능력이라는 이해는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관심과 과제를 부여하며 이는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 1) 대상의 확장

영재성의 개념이 확장되고 영재성의 본질이 다변화됨에 따라 가장 먼저 대두된 교육적 차원의 문제는 ‘누가 영재인가?’라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으로서 영재를 규명하는 것은 영재의 선정과 그에 따른 교육방법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재성의 이해는 다양성의 수용과 계발의 필요성 인식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는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교육적 당위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가드너의 다중 지능이론이나 가네가 제시하고 있는 다중관계성을 수용하게 되면서 영재성이란 특정 영역에서 분명하게 존재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에의 노출을 통해서 발견/발현되고 발달되는 것이며 이는 음악영재성의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위에는 음악적으로 잠재적인 영재성을 가진 더 많은 아동들이 존재 할 것이며 영재교육은 잠재적 영재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양성 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범위 선정에 있어 유연성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잠재적 영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확대의 문제는 영재성을 판별 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영재성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마찬가지로 음악 영재성 역시 다양한 음악적 능력 요인으로 결정되며 뛰어난 음악적 잠재성이 유전성에 근거한다고 해도 그 잠재성은 음악적 학습/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적 경험과 훈련의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대상이 음악영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일반 음악교육과정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연장선상에서 진행

될 수 있어야 한다.

## 2) 차별화

교육적 시각에서 영재아에 대한 시작점은 영재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별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초기 영재교육과정에서 차별성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 내용의 소재의 차별화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지만 영재성 발현 과정에서 동기, 성향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의 역할이 드러나면서 차별화의 영역과 방법 또한 다양해 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의 차별성 역시 전공영역에 한정된 기능중심의 집중교육의 양상에서 벗어나 음악적 사고능력 및 음악적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차별성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3) 수월성

영재학생들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의 범위 및 계열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요구한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핵심에는 영재아들이 보이는 학습적 수월성이 자리하고 있다. 영재아들이 보이는 학습적 수월성은 해당영역에서 상위수준의 지식이나 기능을 매우 빠르고 쉽게 마스터할 수 있는 심화와 속진의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Ward(1961)가 제안하고 있듯이 영재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은 영재들의 학습적 수월성을 반영하면서도 영재들이 해당 영역의 지식의 주요 분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의 차별화도 일련의 원칙과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 음악적 능력의 발전 양상 안에서 각각의 음악영재들이 보이는 능력적 특성과 학습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차별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4) 체계성

Van Tassel-Baska(1986)는 영재의 차별성과 다양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효과적으로 보이는 최신 주제들과 창의적 사고 방법을 더하고 상위 인지 기술로 알려진 방법들을 결합하여 섞은 임기응변적 영재교육과정, 소위 조리법적 교육과정(recipe approach)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Tannenbaum(1983)은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이란 대상자의 특성과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관련된 내적원리를 지닌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해 접근되어야 하며 교육자들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안내자로서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념적 모델을 창안하고 수정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모델은 해당 영역에서의 체계성에 기초하여 영재성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재능적 탁월성 도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구성에 대하여 분명히 제안하여 향후 프로그램 계획의 안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청사진을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2.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접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으로서의 타당성과 체계성 정립은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음악영재성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모형 개발은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악영재성은 다양한 능력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발현과정에서 기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음악성과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탐색하고 확대 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음악영재교육의 목적은 영재성의 발견이 아닌 탁월성으로의 완성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음악영재교육과정은 고도의 음악적 능력 개발과 예술성의 심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음악영역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개념 및 기초 능력의 구축에서부터 단계적 심화의 과정을 내용적, 방법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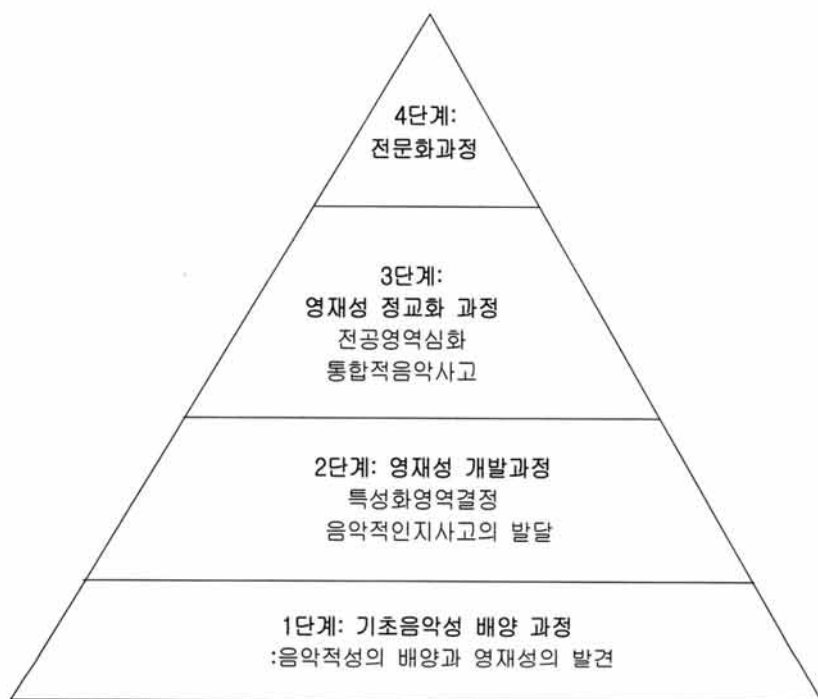
넷째, 음악영재아들의 학습속도와 수준 그리고 성향 및 기질은 일반학습자들 뿐 아니라 영재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영재아들의 차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차별화와 융통성을 기본원리로 개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들을 고려하여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체계의 위계적 구조와 영재교육을 위한 차별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성과 차별화 방법에 대한 제안들이다.

### 1) 능력 발달적 위계성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음악재능의 발달적 양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레만(Lehmann, etc., 2007)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의 잠재적 음악능력은 개인의 한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음악적 탁월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음악영재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능력수준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음악적 영재교육을 계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음의 음악교육과정 구성 체제(그림 7)<sup>1)</sup>는 음악재능의 ‘배양-개발-정교화-전문화’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한수연 외, 2006).

1) 음악영재성 양성을 위한 4단계 과정은 예술영재교육과정연구(한수연 외, 2006)에서 본 연구자가 제안했던 초기 모형으로서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단계 설정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림 7] 음악영재교육과정 구성 체제 제안

음악능력의 발달단계가 심리학에서의 아동발달단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음악영역에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아동들은 매우 빠른 학습속도와 도약적인 음악적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네 가지 단계가 연령의 발달과 병행하지는 않지만 음악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능력수준의 단계적 발전과정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야 할 능력요소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영재성은 교육적 경험의 과정에서 양성되고 판별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계적 교육과정의 시작인 1단계는 일반음악교육과 인접하여 시행 되어야 한다. 기초음악성은 일반음악교육에서의 목적이면서 영재성의 발현 되는 시작 점 이기도 하다. 일반음악교육과 영재교육의 제도적 연계는 보다 많은 대상이 질 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잠재적 음

악영재들이 내재된 가능성을 자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진 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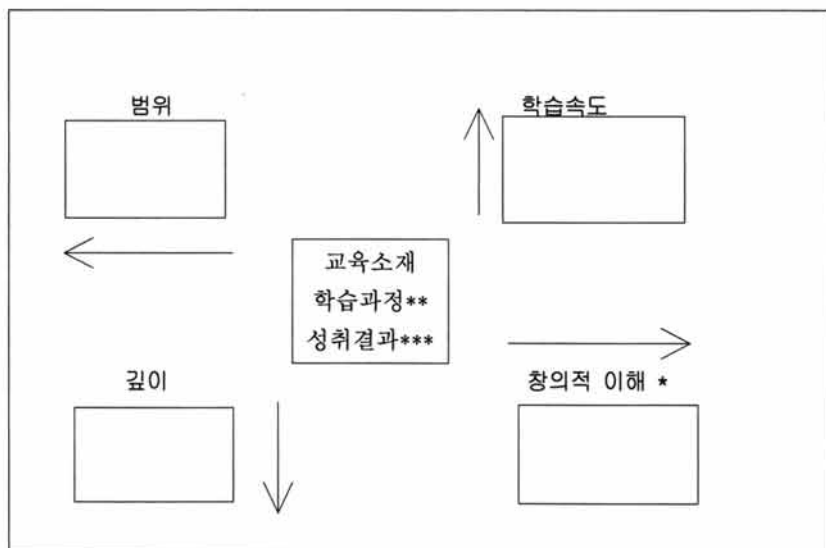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 능력심화의 단계를 구분하는 고정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능력발달의 상위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지침으로서의 음악영재교육과정모형은 이를 근거로 하는 다양한 단위 프로그램들이 전체의 교육과정안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교육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를 체계적으로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교육과정의 차별화

음악영재교육을 포함한 영재교육영역에서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 한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재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의 소재, 교육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평가에서의 차별화를 제안하고 있다(Tomlinson, 2004).

- 교육재료(content): 영역의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의 포함 광범위한 적용의 가능성  
기초개념을 기저로 한 상위 개념들 간의 계열을 고려
- 학습과정(process): 분석과 비평, 창의적사고의 고등 정신기능 개발  
개방형 과제(open-ended task), 탐색과 발견을 중심학습  
학습속도는 빠르게 방법은 다양하게
- 성취평가(product): 새로운 재료, 기능, 방식 등의 적용  
교사의 평가 뿐 아니라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과정이 적용된 참평가

헤로투וני안(Haroutounian, 2002)은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차별화의 문제를 숙진, 심화, 창의성의 요인과 연계하여 다음(그림 8)과 같은 모형으로 정리 하고 있다(p. 248).



[그림 8] 음악 영재를 위한 차별화 교육과정의 접근 틀

심화(범위/깊이), 속진은 대부분의 영재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특징이다. 음악전문교육에서도 좀 더 어려운 재료를 빨리 마스터 하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였다. 위의 모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영재성의 목적을 창의적 수준의 능력의 두어 학습자의 '창의적 이해(Creative Interpretation)'를 교육과정 차별화 요소의 중요한 축으로 적용 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있어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목 구성의 문제 외에 학습과정과 평가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 점은 향후 음악교육과정 모형 구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쟁점은 제시된 차별화의 문제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 음악영재양성은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고난이도의 기능 수준 도달의 과정에서 음악적 사고 능력이나 창의성, 나아가 예술성이 동반적으로 계발될 것을 기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음악지능, 음악적 창의성 그

리고 자신의 재능 영역에 대한 가치화 및 동기 부여 역시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V. 결 론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중요성이 커져가는 근간의 흐름 속에서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분석적 점검과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전문인 양성을 위한 음악전문교육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어 왔지만 그 내용과 방법은 교육적 차원의 영재성의 이해와 계발적 접근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차츰 다양한 시도로 가시화 되고 있는 제도적 차원의 음악영재교육이 그 목적 하는 바 창의적 인재의 양성과 영재 개인의 교육적 필요의 충족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앞서 음악영재성과 영재아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목적설정과 방법의 제시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의 상정에 앞선 기초 연구로서 영재성 개념의 이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계적 맥락에서 음악영재성과 그 발현과정을 탐색하였다.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영재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 음악영재성은 음악적성, 음악인지, 표현 기능, 음악적 창의성 등의 다양한 음악능력요소의 단계적 발현을 통해 확인 되어야 한다.
- 음악영재성의 발현은 그 과정에서의 비정규/정규적인 학습 및 환경, 경험의 기회 등 다양한 외부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우리의 주변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더 많은 잠재적 음악영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영재성의 발견을 위한 양성적 환경과 다양한 경험 기회가 필요하다.

음악영재성의 이해에 더하여 음악영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성과 영재를 위한 차별화의 문제를 제도적 배려를 전제로 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하며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접근 원리를 제안 할 수 있다.

- 음악영재성을 계발의 대상으로 보아 잠재적 영재성을 예술적 탁월성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별 단계를 교육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가 있다.
- 음악영재의 능력적 수월성을 고려하여 교육 단계의 적용은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능력의 상승지향과 영역내의 탁월성 달성은 음악영역의 학문적 원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음악영재들인 보이는 학습능력과 성향적 차이를 반영 할 수 있는 차별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악영재교육에 있어 차별화는 소재의 차별화에 제한되지 말아야 하며 학습의 방법과 평가를 포함한 총체적 측면에서 숙진, 심화 및 창의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 제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서울: 저자
- 김춘미 외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 이미경 (2010).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제39집, 157-182쪽
- 정진원 (2008). 음악재능의 이해와 발견. **예술교육연구**, 제6집 2권, 73-83쪽.

- 한수연 외 (2006).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Bamberger, J. (1995). *The mind behind musical ear: How children develop musical intellig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i, D. Y., & Schader, R. M. (2002). Decisions regarding music training: Parental beliefs and values. *Gifted Child Quarterly*, 46(2), 135-144
- Gagne, F. (1985). Giftedness and talent: Reexamining a reexamination of the definitions. *Gifted Child Quarterly*, 29(3), 103-112.
- Gagne, F. (2003). Transforming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al theory. In N. Colangelo & C.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60-74). Boston , MA: Allyn & Bacon.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ordon, E. (1986).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CIA.
- Hallarm, S. (2006). *Music psychology in education*.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hmann, A. C., Sloboda, J. A., & Woody, R. H. (2007). *Psychology for musicians: Understanding and acquiring the skil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land, S. P, Jr. (1971).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Volume I: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aryland State Dept. of Education. (1994). *Renewing Our Commitment to the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 An Essential*

*Component of Educational Reform. Recommendations for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Maryland.* Maryland State Dept. of Education.

Passow, A. H., Goldberg, M. L., Tannenbaum, A. J., & French, W. (1955). *Planing for talented youth*. NYC: Teachers College.

Passow, A. H. (1981). The nature of giftedness and talent. *Gifted Child Quarterly*, 25(1), 5-10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an*, 61, 601-602.

Seashore, C. (1938). *Psychology of music*. NY: McGraw Hill.

Sternberg, R. J. (1986).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Tomlinson, C. A. (1983). *Differenti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 Sage Publication

Van Tassel-Baska, J. (1986). Effective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models for talen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0(4), 164-169.

Ward, V. (1961). *Education for the gifted: An axiomatic approach*.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Books

Zettel, J. (1979). State provisions for educating the gifted and the talented. In A. H. Passow(ed.), *The gifted and the talented: Their education and development*(78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 63-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STRACT

# A Theoretical Study for Developing Curriculum Model for Musical Giftedness

Chung, Jin-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s of systematic curriculum model for the musically gifted and establish a theoretical rationale for constructing curriculum frame. Based on definitions and theories of giftedness in general and finding of studies for musical ability development, musical giftedness is understood as a potential abilities which need appropriate environment in terms of family,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As a main subject matter of curriculum model for those musically gifted, musical giftedness should be unfold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education as a trait that need nurturing and development.

Regarding curriculum model designing for the musically gifted,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curriculum should be rich in opportunity for learners to explore and expand wide range of musical intelligences and abilities. Second, curriculum should be designed in differentiated ways that both identify and develop high capacity in the broadest range and highest expertise in music. Third, curriculum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address variability in how musical talent develops over time in a broad range of learners. Lastly,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on the valid construct of knowledge system of music domain.

key words: musical talent, musical giftedness, curriculum for the musically gifted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3일(3월 24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